4. 말을 조심하라

넷째는 말을 삼가는 것이니,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을 닦으려면 반드시 언어를 삼가야 한다. 사람의 과실은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니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때맞추어 말하고 수정이나 승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투를 정숙하게 하고 익살이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문자와 이치에 유익한 말만 하고 허황한 것, 괴이한 것, 귀신의 이야기나 거리의 상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리들과 잡담으로 날을 보내거나,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니 일체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해설

말은 인간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험에 떨어져 낙심한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네는 진심어린 위로의 한 마디가 큰 위안이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미처 보지 않고 뛰어오는 어린아이에게 '차 조심해!' 한 마디는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가 붙잡은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언어 사용은 지구에서 정점을 차지한 인간의 특징으로 곧잘 거론되는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아울러 문화를 전승하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진화를 촉진합니다.

언어는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칩과 같습니다. 이 칩 안에는 인류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종교, 철학, 과학, 기술, 예술 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언어를 말과 글로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표현되는 형식의 차이로 구분한 방식입니다. 말은 발성 기관을 거쳐 공기를 매질로 전달됩니다. 글은 문자의 형태로 보통은 시각을 통해 인지됩니다.

말과 관련된 격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은 말의 일회성을 보여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격언은 말의 신속한 전달력을 묘사합니다.

공자는 필요할 때마다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며 공손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논어』 5:24)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논어』 15:26)

말은 좋은데 실상은 아니네, 하는 표현처럼 쉽게 과장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공자가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치고 인한 사람이 드물다(『논어』 1:3) 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말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공자는 언행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라고 합니다. 말은 빨리 뛰어가고 행동은 천천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과 관련하여 논한 대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몸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 것이다."(『논어』 4:22) "군자는 말에 어눌하고, 행하는 데 민첩하고자 한다."(『논어』 4:24) "군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말보다 앞서게 한다."(『논어』 14:29)

말을 많이 하다보면 불필요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행동보다 말이 늘 앞서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이나 자리와 상황에 안 맞은 말을 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 말을 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데, 그 앞에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실인

(失人)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언했다는 말은 많이들 쓰고 알지만 실인이라는 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한 만한데도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요, 더불어 말한 만하지 않는데도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아니하며 또한 말을 잃지 않는다."(『논어』 15:7)

말을 조심하는 태도는 두 가지를 포함하겠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삼가서 실언하지 않고, 말해야 할 때는 말을 나누면서 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맹자는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선비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굳이 말을 한다면 이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이고, 말을 해야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도둑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맹자』 14:31)

공자가 씨앗을 뿌렸다면 맹자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웠습니다. 『논어』는 대체로 단답형의 문장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맹자』는 긴 문장이 많습니다. 맹자의 주장과 설명이 비교적 자세합니다. 『맹자』를 곱씹어 보면 『논어』 어느 구절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맹자』는 『논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율곡은 행실을 닦으려면 반드시 말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말

이 행실을 닦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다 갚는다 합니다. 그런가하면 말 한마디로 십 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도 합니다. 행실을 닦는데 말의 영향력이 이처럼 큽니다.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다 같은 말이지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격려 한 마디, 칭찬 한 마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게 하는 살리는 말입니다.

반면에 죽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넌 안 돼, 해 봐야 소용없어, 네 탓이야, 맨날 꽝이야, 이런 종류는 좌절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죽이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은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살립니다. 허나 죽이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네 말대로 될 지어다!'

살리는 말은 자신과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성스럽고 믿음이 갑니다. 그 말투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사려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남을 뒤에서 험담하고 쓸데없는 농담으로 채워진 말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 율곡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불필요한 잡담으로 날을 보내거나,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잡담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식히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할 때 한담은 가벼운 청량제와 같습니다. 율곡이 한 말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잡담으로 날을 보내지는 말라.' 잡담을 하더라도 잠시 잠깐으로 하고 종일토록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율곡이 잡담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율곡이 공부하는 사람은 시대의 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날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곡과 비슷한 말을 공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논어』 8:14)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증자가 알려줍니다. 『위령공편』에 방금 인용한 공자의 말이 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논어』 14:28) 정치를 담당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 뭐라 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인물이 주공입니다. 주공은 어린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예치 시스템을 정비한 노나라의 제1대 제후입니다. 공자는 인과 예로써 태평성대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후에 인 사상은 맹자로, 예 사상은 순자로 이어져서 선진유학의 대표자로

공맹순을 듭니다.

주례는 철저한 등급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자가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공도 "맞는 말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논어』 12:11)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답변과 경공의 맞장구를 통해서 보건대, 각자의 자리에 맞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념이 드러납니다. 증자가 말한 것처럼 군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데도 그 정사를 뭐라 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때는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의논하지 않는다."(『논어』 16:2)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서민들이 정치에 불만을 표한다는 말이겠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정치를 논하지 않아야 할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계급과 등급의 차이에 기반을 둔 왕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양식으로 살아갑

니다. 정당제를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과 집단이 국가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지만 그 모든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민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사회를 성립시킨 이념입니다. 이 의식은 첫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미망이나 비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생활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지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율곡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지 말라.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따져라.'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欲飭儒行, 須愼樞機, 人之過失, 多由言語.
학 자 욕 칙 유 행 수 신 추 기 인 지 과 실 다 유 언 어

言必忠信, 發必以時, 重然諾, 肅聲氣,
언 필 충 신 발 필 이 시 중 연 락 숙 성 기

毋戱謔, 毋諠譁, 只作文字義理有益之話,
무 희 학 무 훤 화 지 작 문 자 의 리 유 익 지 화

若荒雜怪神及市井鄙俚之說, 不可出諸其口.
약 황 잡 괴 신 급 시 정 비 리 지 설 불 가 출 제 기 구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을 닦으려면 반드시 언어를 삼가야 한다. 사람의 과실은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니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때맞추어 말하고 수정이나 승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투를 정숙하게 하고 익살이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문자와 이치에 유익한 말만 하고 허황한 것, 괴이한 것, 귀신의 이야기나 거리의 상스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欲: ~하고자 하다/飭: 조심하다/儒行: 유학자의 행실/須: 모름지기, ~해야 한다/愼: 삼가다/樞機: 사물의 몹시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말/過失: 과실/多: 많이/由: 연유하다/言語: 말/忠信: 충성되고 믿음이 있다/發: 발설하다/以時: 때에 맞춰서/重: 무겁게 하다, 신중히 하다/然諾: 수락/肅: 엄숙하다/聲氣: 목소리/毋: ~하지 말라/戱謔: 장난치다/諠譁: 시끄럽게 떠들다/只: 단지/作: 하다/文字: 공부/義理: 도리/有益: 유익하다/若: 가령/荒雜: 황당하고 잡되다/怪神: 괴이한 귀신/及: 및/市井: 인가가 모인 곳/鄙俚: 속되다/不可: ~하지 말라/出: 밖으로 내다, 말하다/諸: 지어(之於)의 겸사, 무엇을 ~에서

至如追逐儕輩, 空談度日, 亡論時政, 方人長短,
지 여 추 축 제 배 공 담 탁 일 망 논 시 정 방 인 장 단

皆防功害事, 切宜誡之.
개 방 공 해 사 절 의 계 지

무리들과 잡담으로 날을 보내거나,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니 일체 경계해야 할 것이다.

至: 이르러, ~에 대하여/如: 가령, 이를테면/追逐: 따르다/儕輩: 무리/空談: 쓸데없이 말하다/度日: 시간을 허비하다/妄論: 함부로 논하다/時政: 당시의 정치/方: 비교하다, 따지다/長短: 장점과 단점/妨: 방해하다/功: 공부/害: 해치다/事: 일하다/切: 일체/宜: ~해야 한다/戒: 경계하다/之: 그것